

함평군, 잔류농약 분석기술 세계 최고 입증

국제 분석능력숙련도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

“안심하고 함평産 농산물 소비하도록 최선”

함평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잔류농약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함평군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최근 발표된 '2020 국제 분석능력숙련도평가(FAPAS)'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운영하는 농·식품

화학분석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잔류농약 등 10여개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며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과 민간분석기관, 연구소 등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잔류농약 분석능력 평가 기준인 Z-score 지표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0.4 이하의 수치를 받았다.

“Z-score”는 실제 평가결과와 제출 값의 차이를 전체 참여기관의 표준편차로 나눠 산정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기술의 우수함을 나타낸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수질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분석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능력을 꾸준히 유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함평산(産)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을 통해 지역 로컬푸드와 품질보증검사와 학교급식 등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도내 농업기술센터 중 유일하게 친환경인증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ICT기반 새로운 의료·건강 관리서비스

“점 의료 접근성 한계극복”

신안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건강 서비스를 접목한 ICT 기반 의료·건강 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

신안군은 섬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고,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의료접근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ICT 기술의 발달로 의료·건강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공하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혈당, 혈압, 심전도, 체질량지수, 신체활동량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군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도들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지역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금년에 실시된 국비 지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① ICT기반 방문간호 원격협진, ② 모바일 헬스케어, ③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④증강현실(AR)기반 원격협진 등의 사업이 확정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ICT기반 방문간호 원격협진”은 방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테블릿PC 화면으로 의료기관 전문의와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원격협진 서비스로 만성질환자 약 5,8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활동량계를 지원하여 활동량과 체성분, 혈압, 당뇨 등을 모바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설문조사, 혈액검사 등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 선정된 1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무안군,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특별감찰 실시

김산 군수, 군민 봉사자로서 공무원 책임 강화 특별지시



무안군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김산 군수는 지난 13일 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공직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자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조직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간부 공무원들의 철저한 조직관리와 더불어 감사부서에 강도 높은 공직감찰 실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특별감찰기간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마스크 쓰기 생활화, 골프 및 전직원 회식 금지 등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재난상황에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군정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감찰기간 동안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마을 세무사’로 세금 고민 해결

어렵고 복잡한 세금 때문에 고민이라면 목포시의 ‘마을 세무사’ 제도 이용을 추천한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금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 및 불복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한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대행은 제외된다.

담당 동 주민을 전담 상담하는 마을세무사는 올 해에도 7명이 지정되어 앞으로 2년간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목포시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하여 상담 가능하다.

목포=박정수 기자

목포시,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학교·어린이집·복지시설 등 244개소 위생관리실태 점검

목포시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 등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학교,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244개소를 대상으로 시 보건소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 식재료 및 식기류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개인위생관리 ▲ 식재료 공급·유통·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중독 예방요령 등 현장교육을 통해 집단 식중독 사전방지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하절기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해 급식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영암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접수

영암군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FTA 직접피해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 12. 31. 이전) △한·미 FTA 발효일

(2012. 3. 15.)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경우 △2019년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이들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내 지원받는다.

폐업지원제는 △축산업 허

가·등록을 받은 자(2018. 12. 31. 이전) △품목고시일(2020. 6. 25.)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자 △발효일 이전부터 2019년도까지 돼지 사육규모가 10마리 이상인 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